

제목 :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 삼상 1:1-20

시작찬송가 : 479(새363), 483(새539), 484(새365)
현금찬송가 : 330(새272), 349(새214), 482(새364)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즉각적으로 응답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되는 기도는 기도하는 당사자가 바른 자세에서 기도하는 경우이며,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기도하는 동기가 불순하거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이 되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경우와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침묵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1. 기도의 응답

- 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즉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믿음과 축적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 마 17:20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 막 9:19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 ②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 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응답하신다고 전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간구한다 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행 16:6-7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 ③ 우리의 신앙성숙을 위해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때’ 를 기다리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합 2: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 ④ 깨달음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응답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 많은 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기도와 응답의 관계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 고후 12:8-9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⑤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은혜를 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기도응답의 한 형태로 생각해야 합니다.

벧후 1:20-21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행 2: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⑥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의 응답인데, 잘못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하십니다. 침묵의 응답은 우리가 어이없는 질문, 혹은 가치 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침묵하게 되는 경우와 유사한 것입니다.

마 27:12-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 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⑦ 성도가 감당해야할 고난의 사명이 있을 때에도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고난의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께 끝내 침묵하신다면 성도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 27:46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의 한마디 :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3월 특별 새벽집회를 위하여.